

「'89 우수농장상」을 수상한 태화축산

취재 : 김 동 성



'88년엔 최우수농장상 수상, 2년 연속수상 영광

'88년도에 검정성적 최우수농장상을 수상한 바 있는 태화축산(경남 김해군 한림면 안곡리 156번지, 전화(0525)43-6408~9)이 '89년도에도 또다시 본회로부터 검정성적 우수농장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2년 연속 검정성적 최우수,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것은 태화축산이 처음이다.

태화축산(대표 : 이시길, 51세)은 '89년도에 검정소에 출품된 종돈장의 검정돈 캠퍼온 출품횟수, 출품두수, 선발지수, 합격률, 합격두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 1,078점을 얻어 송파농산의 1,087점에 이어 2위를 차지, 우수농장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89년도에 검정소에는 64개 농장에서 1,318두를 출품해 612두가 합격했었다.

태화축산의 '89년도 검정성적을 보면, 일당중체량이 911g으로 검정소의 전체 평균인 890g보다 무려 21g이나 높았고, 사료요구율도 2.53으로 검정소 평균 2.65보다 0.12나 낮았다. 또 등지방두께는 1.44cm로 검정소 평균인 1.64cm보다 0.2cm나 얇았고, 선발지수도 195점으로 검정소 평균인 182점보다 무려 13점이나 높았다.

이와같은 성적은 태화축산이 '88년도에 최우수 농장상을 받을때의 성적인 일당중체량 911g, 사료요구율 2.60, 등지방두께 1.57, 선발지수 189점을 앞지르는 성적이다. 이는 태화축산의 종돈능력이 해를 거듭할 수록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면 태화축산은 어떻게 종돈 개량을 해 왔길래 2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을까?

태화축산은 지금부터 18년전인 72년초부터 돼지 30두로 양돈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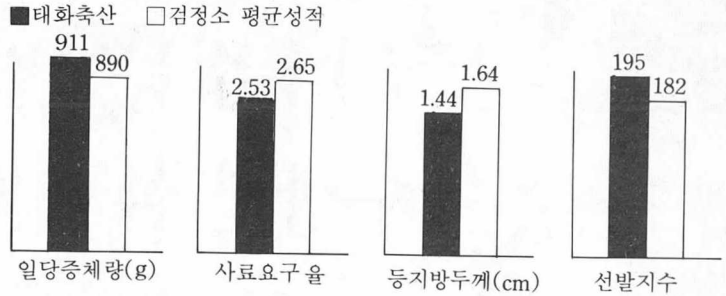
작한 이래, 84년부터 본격 종돈개량에 착수, 현재는 원종돈 120두(대요크셔 60두, 랜드레이스 60두)를 비롯, 모두 450두 정도의 모돈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종돈장이다.

'84년이후 검정소를 통해 챔피언 등 고능력 검정돈을 구입하고,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지의 종돈장을 직접 방문, 선발을 통해 종돈 70여 두를 수입했다. 이를 기초로 기초돈군을 구성한 후 대요크셔 4개라인, 랜드레이스 4개라인, 햄라인 등 계통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3~5%의 강선발을 통해 고능력돈만 핵돈군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종돈개량을 해오고 있다.

철저한 자체농장검정과 강선발 실시

또 태화축산은 검정소에 종돈을 출품하는 외에 본회에서 실시하는 공식 농장검정과 함께, 생산된 종돈 전두수에 대해 자체농장검정을 병행 실시해 종돈을 개량하고 있다. 종돈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정성과 외모, 혈통을 종합 평가해 선발한다. 종돈의 산육능력과 번식성적 등 모든 데이터는 컴퓨터에 수록해 컴퓨터를 육종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태화축산의 이시길 사장은 「능력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종돈을 검정소에 출품해 왔으며, 평소 철저한 자체 농장검정과 강선발을 했기



▲ '89년도 검정소 합격돈(612두)과 태화축산 출품돈(44두) 성적

때문에 종돈개량이 촉진된 것 같다」고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같은 결과 '86년 10월부터 검정돈을 출품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챔피언을 배출했고 가장 많은 종돈을 출품하는 농장이 되었다.

수입종돈 문제점 보완위해 사료 주문생산 급여

그러나 태화축산은 유럽지역에서 수입된 종돈은 우리나라와 환경, 사료의 배합비 등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화축산도 영국 NPD 등에서 종돈을 다수 수입해 왔는데, 환경과 사료의 차이로 인해 지체 불량돈이 많이 발생하고, 산자수와 이유두수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이 농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체가 강건한 미국종돈을 수입하는 한편, 영국의 NPD에서 급여하는 사료와 똑같이 사료배합비를 짜, 사료회사에 제시, 주문생산(사료명: 수퍼브리드 A사료) 급여하고 있다. 특히 포유돈사료의 경우 우리나라의 조

단백질 함량 14%를 17.5%로, 라이신은 0.6%에서 1.2%로, 지방함량은 7.5%로 높이고, 미네랄과 필수아미노산 등을 보강해 급여하고 있다. 그 결과 지체불량돈 발생과 번식성적이 낮은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

태화축산은 생산성 향상과 종돈의 위생관리를 위해 벅치 시스템을 통한 all in, all out 체제로 농장을 관리하고 있다.

태화축산은 향후 종돈개량 촉진과 종돈장의 전문화를 위해 모계로는 랜드레이스와 대요크셔 등 2가지로 품종을 단일화 하고, 부계로는 듀록과 햄프셔로 단일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태화축산에서는 핵돈군만 운영하고 GP농장과 PS농장, 비육농장을 계열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특히 비육농가의 경우 땅만 제공하면 돈사시설은 물론, 자돈 300~400두와 사료, 약품, 사육기술을 모두 공급해 완전 계열화 체제로 농장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년 연속 최우수, 우수농장상을 수상한 태화축산의 종돈개량과 농장경영의 전문화 분업화 체계에 기대를 걸어 본다. **이시길**